

#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효과 연구

박은식  
공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t of Youth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and Their Adaptation to School Lives

Eun-Sik Park  
Department of Life Sport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충남 공주, 천안, 세종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2022년 1월 10일~1월 24일) 조사하여 276명의 응답값을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성장 마인드 셋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릿이 성장 마인드 셋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그릿은 청소년이 융합인재로 성장과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rit on adaptation to the school life of young people through youth activit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order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growth mindset as an influential factor. For this study, high school students from Gongju, Cheonan, Sejong, and other regions in Chungnam were surveyed over two weeks (January 10-24, 2022), and responses from 276 student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grit in youth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Second, grit in youth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growth mindset. Third, growth mindset in youth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i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in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a growth mindset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Fifth, grit and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young people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did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their school years. As described above, the results of this study found that grit had a positive effect on both growth mindset and school life adjustment for adolescents who experienced youth activities. Such grit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lives of young people as they mature into human beings who grow up as fusion talent.

**Keywords** : Youth Activities, Grit, Adaptation to School Life, Growth Mindset, Mediating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Eun-Sik Park(Department of Life Sport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eunsikpark@gmail.com

Received April 19, 2022

Revised May 17, 2022

Accepted July 7, 2022

Published July 31, 2022

## 1. 서론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라는 공간에서 또래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학업적·심리적·사회적 발달을 이룬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으로서 청소년 개인의 자아발달 및 사회화 과정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성인기 이후에도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적응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 이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 발전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빈곤이 학생들 학업중단의 주원인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대부분의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원인이 사회 환경의 변화이다.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을 유발하는 사회 환경 변화로는 부모 이혼, 부모와의 갈등, 아동 및 청소년 학대문제, 진로문제, 또래문제, 교사와의 갈등, 학교폭력문제, 청소년 비행,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을 들 수 있으며[2],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 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습활동이 비대면 형태로 지속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대면 수업의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생활적응에 도울 수 있는 요소들 중 하나로 청소년활동을 들 수 있다. 청소년 활동은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인 성장이나 사회적인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정신적, 신체적 행위 전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내의 청소년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스포츠 활동, 동아리활동, 문화 예술 활동, 국제교류활동과 정책참여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3]. 초기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체험을 제공하는 수준으로 운영되었으나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등이 마련되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적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후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발달과업과 역량을 개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2009년부터는 청소년체험활동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이 등장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육과정

에 포함시키고, 2013년에는 자유학기제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청소년활동은 교육정책의 협력체제로 인식되기도 했다[4].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이 강조되면서 자기주도적 청소년활동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의 청소년활동은 학교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5].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청소년활동은 삶의 만족감[6,7], 자아개념[8,9], 공동체의식[10], 진로정체감[11] 등을 향상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한 청소년활동은 변화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해 청소년 개인의 특성들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질인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성장 마인드 셋을 선정하여 그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합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서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이 그릿, 성장 마인드 셋을 갖추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실증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그릿

Duckworth 외(2007)는 성장(Growth), 회복탄력성(Resilience),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그리고 끈기(Tenacity)라는 4가지 개념의 첫 글자들을 조합하여 그릿(GRIT)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13]. 그들은 그릿이 장기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지속성과 열정을 의미하며 전문적인 수행과 관련된 주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 즉 그릿이란 역경이나 실패, 정체(plateaus)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과 흥미를 장기간 지속시키는 비인지적인 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13].

김주환(2013)에 따르면, 그릿이 자신이 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열정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해내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했다 [14]. 그는 그릿이라는 단어에 개념을 부여하지 않고 기존의 비인자 능력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개념 정의를 내린다. 또한, 이를 갖추려면 먼저 스스로 노력을 기울이면 더 잘할 수 있다는 능력 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 역경이나 어려움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본인이 하는 일 그 자체가 좋고 재미 있어서 하는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 마지막으로,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는 도전하는 끈기(Tenacity)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구성요소들을 GRIT이라고 표현하였다[1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릿은 단일개념이 아닌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릿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꾸준한 노력(perseverance of effort)과 지속적인 관심(consistency of interest)으로 이루어져 있다[13,15]. 먼저, 지속적인 관심은 목표와 흥미를 쉽게 또는 자주 바꾸지 않고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지속하는 경향성을 뜻하며, 꾸준한 노력이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차원을 넘어서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패 또는 좌절을 딛고 노력을 계속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Duckworth 외(2007)는 그릿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면서 인내와 열정 두 요소로 나누었는데, 그들은 노력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인내를, 관심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열정을 다루었다[13]. 또한 꾸준한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 간에 예측력의 차이가 없으므로, 이 둘을 합하여 전체로서의 그릿 총점이 다양한 결과들을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하다고 제안했다[13].

## 2.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Kurdek, Fine과 Sinclair(1995)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의 개념을 성적 및 기초지식에 관한 성취점수, 문제행동 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으며[16], Ladd와 Kochenderfer(1996)의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에 관한 아동의 지각 및 감정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들은 학교적응을 아동이 학교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로 설명하면서, 이런 적응의 각 영역은 아동의 이후 교육적인 진보의 중요한 전조가 된다고 하였다[17]. 또한 Spencer(1999)는 학생의 특성,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과 요구 간의 교육적인 적합성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학교순응이나 적응의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 학교출석, 학교 참여 지속성, 학습준비, 학교졸업 등에서의 부적합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18]. 이렇듯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개념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을 학교라는 환경에서 상호작용하고, 환경에 변화하려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습에 관한 성취는 물론 아동의 대인관계 또는 적절한 행동을 통해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것으로 개념적인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고 교사나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 나아가 바람직한 행동을 형성해 나가고, 학업성취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며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한다고 하였다[19]. 더불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조절능력도 생긴다[20]. 따라서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여 사회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21]. 그러므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층적인 해결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 2.3 성장 마인드 셋

성장 마인드 셋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지능과 역량을 향상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22]. 개인의 능력이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과는 별개로, 가변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셋에 따라 목표를 향한 생각과 행동에 차이가 나타난다[23]. 학자들은 지능과 역량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며 개인의 노력에 따라 통제 및 신장될 수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증진이론(incremental theory)과, 지능과 역량은 고정적이며 노력 여부에 의해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믿는 실체이론(entity theory)으로 구분하였다[23]. 이후 증진이론은 성장 신념 또는 성장 마인드 셋으로, 실체이론은 고정 신념 또는 고정 마인드 셋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대체로 고정 마인드 셋이 아닌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지고 있을 때 인지, 정서, 행동 등의 영역에서 보

다 적응적인 모습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4].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학습자는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학습자에 비해서 성장을 위해 노력을 꼭 필요한 요소로 생각하며 그 결과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다[25]. 다양한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26,27]. 성장 마인드 셋은 고정 마인드 셋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녀 지속적으로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성장 마인드 셋을 지닌 학습자는 수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고정 마인드 셋을 지닌 학습자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한다[25]. 국내 선행연구에서 성장 마인드 셋 개념을 살펴보면, 인간의 지적 능력은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믿는 신념[28], 성취 과정에서 보일 행동과 결과에 대해 잘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 셋이 가지고 있는 개인 성취 수준에 큰 영향력을 주는 개인의 신념을 기반으로 다른 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 2.4 선행연구

### 2.4.1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그릿이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 그릿과 관련된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많지 않지만, 그 간 선행된 그릿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연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지이(2019)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그릿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학업적 그릿의 경우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릿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이재열(2018)과 홍다현(2019)은 그릿은 대학생활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30,31],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신여울, 구민주, 박다운(2019)은 현재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는 그릿은 개인의 인지 및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통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2]. 이렇듯 그릿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넘어 학교적응이라는 심리, 행동적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실제로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 성취력이 높았고, 이때 개인의 지능과 성격을 통제해도 그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33]. 이는 그릿이 높은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도가 높으며, 더욱더 적응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 2.4.2 그릿과 성장 마인드 셋의 관계

그릿과 성장 마인드 셋의 관계도 밝혀진 바 있다[34]. Snipes 외(2012)는 그릿과 마인드 셋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냈으며[35], Dweck(2006)은 그릿이 높을수록 목표를 추구하는 성장 마인드 셋이 강화된다고 밝혔다[22]. 미국의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인드 셋과 그릿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고[34], 성장 마인드 셋을 지닌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목표를 향한 노력을 지속하는 성향, 즉 높은 그릿 성향을 나타냈다[36]. 이처럼 성장 마인드 셋의 긍정적 역할과 성장 마인드 셋과 그릿의 상관관계는 다양한 연구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확인되었다[37].

### 2.4.3 성장 마인드 셋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

마인드 셋은 학교와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특징인 도전 과제를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2]. Tamir 외(2007)는 대학으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마인드 셋이 정서, 사회적 적응과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38]. 성장 마인드 셋은 웰빙 수준의 증가, 스트레스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관한 성장 마인드 셋은 몰입, 행복, 참여, 복지, 귀인 스타일, 학습 목표 및 학교만족을 가져온다고 하였다[39]. Zuckerman 외(2001)는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학생들보다 전공을 유지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발견했으며[40], 김도연(2017) 역시 성장 마인드 셋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과 희망, 학습동기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성장 마인드 셋이 학교생활적응, 희망 그리고 학습동기를 촉진하는데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41]. 이렇듯 고정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 수준에 정체되고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에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의 학문적인 사건의 결과에 관해 더 큰 자재력을 갖고 있고 배움에 더 집중하므로 잠재력을 발휘하여 최고의 성과를 낸다. 이와 같이 성장 마인드 셋의 개입이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은 성장 마인드 셋의 영향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학교생활적응과 더불어 여러 맥락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효과가 어떠한지, 다른 변인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릿, 성장 마인드 셋,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과 학교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효과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아래와 같고 Fig. 1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이다.

- H1.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성장 마인드 셋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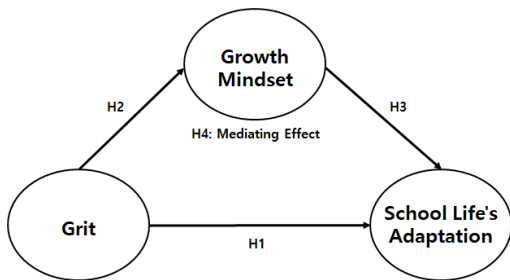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공주, 천안, 세종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2022년 1월 10일~1월 24일) 실시되었으며, 설문지에 대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행하고, 설문지를 회수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총 285명 중 불성실한 응답 9부를 제외하고 총 27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59.4%(164명), 여학생이 40.6%(112명)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이 36.2%(1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학년 34.1%(94명), 3학년이 29.7%(82명) 순으로 나타났다.

#### 3.3 측정도구

##### 3.3.1 그릿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Duckworth 외(2007)가 개발[13]한 그릿의 원척도 GRIT-O를 12문항으로 축소한 GRIT-S[15]의 문항을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2015)이 수정, 변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42]. 이 도구는 총 8문항으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각각 4문항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흥미유지 문항의 경우 모두 역 코딩 하도록 되어있다. 그릿 측정도구는 '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각 1점에서부터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흥미유지' 0.793, '노력지속' 0.898, 전체 신뢰도는 0.877로 나타났다.

##### 3.3.2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의 측정도구로는 Ladd, Kochenderfer & Coleman(1996)이 개발[43]한 학교생활 적응척도의 영역을 기반으로, 이영선(2005)이 재구성한 학교생활 적응척도를 활용하였다[44]. 이 척도는 교사-학생의 관계, 교우관계와 학습활동, 규칙준수, 그리고 학교행사 참여 등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각각 1점에서부터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 및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교사-학생의 관계' 0.830, '교우관계' 0.610, '학습활동' 0.724, '규칙준수' 0.736, '학교행사 참여' 0.707, 전체 신뢰도는 0.907로 나타났다.

##### 3.3.3 성장 마인드 셋

성장 마인드 셋의 측정도구로는 Dweck(2006)의 척도[2]를 연구자가 변안하여 전향신(2018)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45]. 성장 마인드 셋 척도는 먼저 지능은 고정되어 있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고정 마인드 셋과 지능은 노력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신념인 성장 마인드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척도는 성장 마인드 셋, 고정 마인드 셋 각각 4문항이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 셋에 관한 4문항만 활용하였다. 성장 마인드 셋 척도는 '매우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거의 그렇다', '매우 그

렇다'로 각각 1점에서부터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는 성장 마인드 셋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 마인드 셋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36으로 나타났다.

###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행하였고, 측정변수들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측정 변수들 간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행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성별, 학년에 따른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test,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활용하였다[46].

## 4. 연구결과

###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의 개념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 및 평균분산추출지수(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에 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Table 1). 그리고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변수에 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Table 2와 같이 모든 요인부하량( $\lambda$ )이 0.593에서 0.883으로 나타나 각 요인에 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hi^2(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21.146 ( $p=0.000$ )	40	.026	.923	.921	.946	.945	.086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Path		S.T $\beta$	S.E.	$t$ -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GRIT	→ Keep interesting	.859	Fix	-	.843	.733
	→ Continuous effort	.635	.121	7.961***		
Growth mindset	→ Growth mindset1	.818	Fix	-	.887	.666
	→ Growth mindset2	.883	.074	15.330***		
	→ Growth mindset3	.694	.069	12.022***		
	→ Growth mindset4	.593	.065	10.108***		
School life's adaptation	→ Teacher-student relationship	.747	Fix	-	.961	.834
	→ friendship	.763	.067	12.605***		
	→ Learning activities	.709	.083	11.640***		
	→ Rule compliance	.863	.080	14.292***		
	→ Participation in events	.723	.091	11.882***		

\*\*\* $p<.001$

###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에 의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한편,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일 경우 두 변수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에 대한 상관관계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

Variables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1									
②	.546**	1								
③	.843**	.911**	1							
④	.440**	.246**	.375**	1						

⑤	.488 <sup>**</sup>	.300 <sup>**</sup>	.433 <sup>**</sup>	.506 <sup>**</sup>	1
⑥	.423 <sup>**</sup>	.369 <sup>**</sup>	.445 <sup>**</sup>	.467 <sup>**</sup>	.541 <sup>**</sup>
⑦	.380 <sup>**</sup>	.392 <sup>**</sup>	.439 <sup>**</sup>	.344 <sup>**</sup>	.518 <sup>**</sup>
⑧	.469 <sup>**</sup>	.344 <sup>**</sup>	.452 <sup>**</sup>	.455 <sup>**</sup>	.691 <sup>**</sup>
⑨	.451 <sup>**</sup>	.372 <sup>**</sup>	.461 <sup>**</sup>	.421 <sup>**</sup>	.508 <sup>**</sup>
⑩	.544 <sup>**</sup>	.437 <sup>**</sup>	.548 <sup>**</sup>	.537 <sup>**</sup>	.802 <sup>**</sup>
M	3.80	3.69	3.74	3.71	4.05
SD	.636	.831	.647	.683	.538
skew	-.203	-.762	-.453	-.109	-.449
kurtosis	-.143	.803	.190	-.420	.787

\*\* $p < .01$   
 GRIT: ① Keep interesting, ② Continuous effort ③ GRIT  
 ④ Growth mindset  
 School life's adaptation: ⑤ Teacher-student relationship, ⑥ friendship, ⑦ Learning activities, ⑧ Rule compliance, ⑨ Participation in events, ⑩ School life's adaptation

### 4.3 차이검증

다음 Table 4와 Table 5는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 -test,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년에 따른 그릿, 학교생활적응, 성장 마인드 셋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년에 따라 그릿의 흥미유지( $F=3.113, p < .05$ ), 노력지속( $F=4.700, p < .01$ ), 그릿 전체( $F=3.314, p < .05$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cheffe 사후 분석 결과 흥미유지는 3학년이 1학년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고, 노력지속은 2학년이 1학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교사학생관계( $F=4.173, p < .05$ ), 규칙준수( $F=8.651, p < .001$ ), 행사참여( $F=6.215, p < .01$ ), 학교생활전체( $F=4.797, p < .01$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Scheffe 사후 분석 결과 3학년 학생들이 교사학생관계, 규칙준수, 행사참여, 학교생활전체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학년에 따라 성장 마인드 셋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by gender

Division	Gender	N	M	SD	t
Keep interesting	male	164	3.74	.626	-1.726
	female	112	3.88	.645	
Continuous effort	male	164	3.71	.789	.391
	female	112	3.67	.891	
GRIT	male	164	3.72	.619	-.594
	female	112	3.77	.687	

Growth mindset	male	164	3.67	.662	-1.296
	female	112	3.77	.712	
Teacher-student relationship	male	164	4.05	.499	-.051
	female	112	4.05	.593	
friendship	male	164	3.78	.437	-1.030
	female	112	3.83	.437	
Learning activities	male	164	3.93	.453	.187
	female	112	3.91	.642	
Rule compliance	male	164	3.93	.470	.935
	female	112	3.87	.595	
Participation in events	male	164	3.49	.578	-1.262
	female	112	3.58	.603	
School life's adaptation	male	164	3.83	.381	-.294
	female	112	3.85	.488	

\*\*\* $p < .001$

Table 5. Differences by grade level

Division	Grade	N	M	SD	F	Scheffe
Keep interesting	1st(a)	100	3.71	.681	3.113 <sup>*</sup>	a<c
	2nd(b)	94	3.77	.526		
	3rd(c)	82	3.93	.680		
Continuous effort	1st(a)	100	3.52	.909	4.700 <sup>**</sup>	a<b
	2nd(b)	94	3.88	.612		
	3rd(c)	82	3.68	.909		
GRIT	1st(a)	100	3.62	.744	3.314 <sup>*</sup>	-
	2nd(b)	94	3.82	.481		
	3rd(c)	82	3.80	.669		
Growth mindset	1st(a)	100	3.70	.711	.416	-
	2nd(b)	94	3.67	.638		
	3rd(c)	82	3.77	.704		
Teacher-student relationship	1st(a)	100	3.95	.579	4.173 <sup>*</sup>	a<c
	2nd(b)	94	4.05	.500		
	3rd(c)	82	4.17	.506		
friendship	1st(a)	100	3.79	.434	1.429	-
	2nd(b)	94	3.76	.428		
	3rd(c)	82	3.87	.448		
Learning activities	1st(a)	100	3.88	.578	.473	-
	2nd(b)	94	3.93	.468		
	3rd(c)	82	3.95	.561		
Rule compliance	1st(a)	100	3.80	.609	8.651 <sup>***</sup>	a,b<c
	2nd(b)	94	3.85	.478		
	3rd(c)	82	4.10	.400		
Participation in events	1st(a)	100	3.49	.588	6.215 <sup>**</sup>	a,b<c
	2nd(b)	94	3.41	.558		
	3rd(c)	82	3.71	.589		
School life's adaptation	1st(a)	100	3.78	.469	4.797 <sup>**</sup>	a,b<c
	2nd(b)	94	3.80	.379		
	3rd(c)	82	3.96	.407		

\*\*\* $p < .001, **p < .01, *p < .05$

### 4.4 가설검증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적합도 분석결과 다음의 Table 6과 같으며,  $\chi^2$ , RMR, GFI, NFI, AG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모형 경로 계수를 살펴본 결과<Table 7>,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 $\beta=.513, p<.001$ )과 성장 마인드 셋( $\beta=.491, p<.001$ )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성장 마인드 셋은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327, p<.01$ ).

Table 6. Research Model fit

$\chi^2(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38.52 ( $p=0.000$ )	41	.027	.913	.910	.935	.934	.093

Table 7.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Hypothesis			S.T	$\beta$	S.E.	C.R.	P
GRIT	→	School life's adaptation	.513	.069	5.574	.000	
GRIT	→	Growth mindset	.491	.105	5.949	.000	
Growth mindset	→	School life's adaptation	.327	.042	4.555	.000	

\*\*\* $p<.001$

다음 Table 8은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에 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식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p<.001$ ), 간접효과 및 총효과 모두  $p<.05$  수준에 의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성장 마인드 셋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Table 8. Indirect effect analysis of growth mindse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GRIT	Growth mindset	School life's adaptation	.513***	.000	.161**	.002	.674***	.000

\*\*\* $p<.001$ , \*\* $p<.01$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성장 마인드 셋에 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obel-test를 실행하였으며, 분석결과 Table 9와 같다.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성장 마인드 셋에 관한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성장 마인드 셋을 매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 청소년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그릿은 성장 마인드 셋을 부분 매개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9. Sobel-test result of growth mindset

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Father-Parental attitude	Ego-resilience	Problem-solving ability	3.631***	.000

\*\*\* $p<.001$

## 5. 결론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교육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에서 청소년 개인의 특성들을 증진하고 강화하도록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그릿과 성장 마인드 셋의 영향력을 알아보고,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충남 공주, 천안, 세종 등의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주간(2022년 1월 10일~1월 24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한 276부의 응답을 최종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그릿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신여울 외(201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32]. 즉,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 청소년들은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며 열정으로 흥미를 지속하는 힘을 가지며, 이를 통해 학교라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친구 및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학습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며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행사에 참여하려고 노력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그릿은 성장 마인드 셋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34,36,37]에서 청소년의 그릿과 성장 마인드 셋이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고 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그릿이 높을수록 목표를 추가하는 성장 마인드 셋이 강화된다고 한 Dweck(2006)의 주장을 지지한다[22]. 이는 청소년이 역경 또는 실패, 정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속 성과 열정을 갖는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지능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및 활동이 요구된다. 그릿은 비인지적인 특질이므로[13] 교과학습이 아닌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접근하여야 하므로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을 통해 관심사와 그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Duckworth(2016)에 의하면 관심사는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되는 것이므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이 그릿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47]. 또한 관심을 발견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일을 경험함으로써 흥미를 유지하는 것이 그릿의 증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청소년활동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관심을 지속하고 열정을 키우는 데에는 의미 있는 준거집단의 격려 또한 중요하므로 부모와 교사는 청소년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은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김도연(2017)의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 셋 성향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및 학습동기가 높게 나타난다고 한 결과[41]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간의 지능과 역량이 고정된 능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성장 마인드 셋은 아동기인 초등학생 시기보다 청소년인 중, 고등학생 시기에 더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29,41], 이와 관련하여 백서영 외(2020)는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업량 증가, 엄격한 평가 및 또래와의 경쟁 심화 등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 셋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다[25]. 즉, 인지학습이 중심이 되는 환경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능력이나 성장에 대한 믿음을 하락시키는 것이므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성장 마인드 셋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들은 성장 마인드 셋과 이를 강화하는 그릿의 영향력이 더해져서 학교생활에 더욱 더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활동을 시행하는 모든 기관 및 조직에서는 청소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성장 마인드 셋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시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인지학습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노력을 칭찬하고,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는 성장 마인드 셋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그릿의 증진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그릿과 학교생활적응은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릿 중 흥미유지는 1학년보다 3학년이, 노력지속은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학교생활적응은 일부 하위요인에서 3학년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 셋은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10대 후반기인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성장 마인드 셋이 연령에 관계없이 노력에 따라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 셋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1학년을 중심으로 그릿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신입생들의 학교 적응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을 후속연구에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과 청소년 그룹에 다양한 연령대를 조사하여 제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의 한계점이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은 그릿이 성장 마인드 셋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청소년이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합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성숙한 한 인간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청소년이 그릿, 성장 마인드 셋을 갖추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이며 실증적인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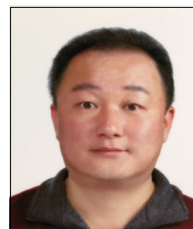
## References

- [1] J. S. Park, J. W. Moom, "The casual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amily conflicts, self-concept, and school adjustment as health protection behavior",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23, No.2, pp.91-107, 2006.
- [2]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5 Education Statistical Analysis Data Collection: Elementary,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Statistics*. 2016.
- [3] J. W. Chu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Youth Welfare Theory*. Paju: Yangseowon, 2013.
- [4] S. H. Moon, D. Y. Yoon, S. K. Park, J. Y. Jung, "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the range of youth activitie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3, No.2, pp.1-23, 2016.
- [5] S. W. Ma, "A study on youth activit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Research Association*, Vol.5, No.1, pp.61-80, 2019.
- [6] T. H. Kim, "Influence of relational characteristics and activity participation of adolescents on subjective well-being: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Forum For Youth Culture*, pp.81-119, 2020.
- [7] E. S. Jin, "Verific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ation, satisfaction of youth activities, resilience, and happin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1, pp.185-217, 2013.
- [8] Y. J. Kwak, M. S. Kang, "The effect of the drum-club activities on emotional intelligence, depression, self-image, and positive affectivity for maladaptive students in middle school",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0, No.4, pp.23-47, 2013.
- [9] K. J. Sung, K. A. Lee, J. C.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of experiential activity, ego-resilience, peer relation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5, No.1, pp.51-72, 2017.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7.25.1.003>
- [10] K. H. Lee, H. I. Kim, "A study of the effects of youth volunteering participation on sense of community, school adjustmen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9, pp.179-202, 2018.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8.09.25.9.179>
- [11] T. K.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adolescent school adjustment on career identity: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atisfaction in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6, No.4, pp.47-63, 2019.
- [12] K. S. Lee, H. S. Park,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volunteer time in the effect of school maladjustment on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depression",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6, No.2, pp.79-91, 2018.
- [13] A. L. Duckworth, C. Peterson, M. D. Matthews, D. R. Kelly,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6, pp.1087-1101, 2007.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14] J. H. Kim, *Grit*. Paju: Sum & Parkus, 2013.
- [15] A. L. Duckworth, P. D. Quin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91, No.2, pp.166-174, 2009.  
DOI: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16] L. A. Kurdek, M. A. Fine, R. J. Sinclair, "School adjustment in sixth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Vol.66, No.2, pp.430-445, 1995.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5.tb00881.x>
- [17] G. W. Ladd, B. J. Kochenderfer, C. C. Coleman,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67, No.3, pp.1103-1111, 1996.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785.x>
- [18] M. B. Spencer,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 identity-focused", *Educational Psychologist*, Vol.34, No.1, pp.43-57, 1996.  
DOI: [https://doi.org/10.1207/s15326985Sep3401\\_4](https://doi.org/10.1207/s15326985Sep3401_4)
- [19] H. J. Park, *The effect of the juvenile parental attachment on the school life adaptation : Mediating effe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the peer support*.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7.
- [20] H. W. So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verty level,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learning motiva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Doctoral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0.
- [21] S. H. L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omplexit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automatic thought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Doctoral Thesis, Sangji University, 2016
- [22] C. S. Dweck,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 New York Random House Digital, Inc., 2006.
- [23] C. S. Dweck, E. L. Leggett,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cal Review*, Vol.95, No.2, pp.256-273, 1998.  
DOI: <https://doi.org/10.1037/0033-295X.95.2.256>
- [24] E. Park, K. H. Kim, "Development of the learning goal orientation promotion program and it's efficacy", *Journal of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Vol.26, No.1, pp.227-250, 2015.
- [25] S. Y. Baek, H. J. Lim, J. J. Ryu, "Meta-analysis of growth mindset and learning-related variable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21, No.2, pp.641-668, 2020.

- DOI: <https://doi.org/10.15753/aje.2020.06.21.2.641>
- [26] S. H. Yoon, J. Y. Lim, "Difference in university students' mindset and failure tolerance according to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rofile",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Vol.40, No.2, pp.5-30, 2019.  
DOI: <https://doi.org/10.18612/cnujes.2019.40.2.5>
- [27] N. K. Cho, J. H. Kwon, M. Y. Ju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utonomy, mindset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with gri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4, No.12, pp.45-69, 2017.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7.12.24.12.45>
- [28] W. S. Choi, S. J. Oh, "The effect of psychological safety on creativity: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growth mind: Set an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Korea Business Review*, Vol.35, No.5, pp.533-552, 2020.
- [29] J. E.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mindset, academic grit, academic achieve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19.
- [30] J. Y. Lee, *A study on the analysis differences of college students' college life satisfaction, Grit and Mindset according to the college admission types*.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8.
- [31] D. H. Hong,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s and college adjustment*.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2019.
- [32] Y. O. Shin, M. J. Koo, D. E. Park, "The longitudinal effects of grit on anxiet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32, No.3, pp.21-36, 2019.
- [33] M. S. Hong, S. R. Lee, "Effects of grit and conscientiousness on academic performance : The mediation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0, No.10, pp.143-151, 2019.
- [34] M. R. West, M. A. Kraft, A. S. Finn, R. E. Martin, A. L. Duckworth, C. F. Gabrieli, J. D. Gabrieli, "Promise and paradox: Measuring students' non-cognitive skills and the impact of schooling",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Vol.38, No.1, pp.148-170, 2016.
- [35] J. Snipes, C. Fancsali, G. Stoker, *Student Academic Mindset Interventions: A Review of the Current Landscape*. San Francisco, CA: Stupski Foundation, 2012.
- [36] D. Perkins-Gough, "The significance of grit: A conversation with Angela Lee Duckworth", *Educational Leadership*, Vol.71, No.1, pp.14-20, 2013.
- [37] J. G. Kim, D. E. Park, "The longitudinal effects of theory of implicit intelligence on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1, No.1, pp.145-162, 2017.
- [38] M. Tamir, O. P. John, S. Srivastava, J. J. Gross, "Implicit theories of emotion: affective and social outcomes across a major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2, No.4, pp.731-744, 2007.
- [39] M. Karwowski, "Creative mindsets: Measurement, correlates, consequences", *Psychology of Aesthetics, Creativity, and the Arts*, Vol.8, No.1, pp.62-70, 2014.  
DOI: <https://doi.org/10.1037/a0034898>
- [40] S. Zuckerman, G. M. Kenney, L. Dubay, J. Haley, J. Holahan, "Shift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1997-1999", *Health Affairs*, Vol.20, No.1, pp.169-177, 2001.
- [41] D. Y. Kim, *Difference between school adaptation, hope, and leaning motivation based on mindset in adolescent*.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2017.
- [42] H. S. Ha, H. J. Lim, M. H. Hwang, "The group difference of grit and self-control and its relations to school maladjustment, academic achievement, and predictability of personality",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1, No.3, pp.145-166, 2015.
- [43] G. W. Ladd, B. J. Kochenderfer, C. C. Coleman,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67, No.3, pp.1103-1118, 1996.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785.x>
- [44] Y. S. Lee, *The effect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on self esteem and school adapta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2005.
- [45] H. S. Jeon, *The relationship among university students' growth mindset, grit, intrinsic future-oriented goals and academic adjustment*. Doctoral Thesis, Mokpo National University, 2018.
- [46]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47] A. Duckworth,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Vol. 234). New York, NY: Scribner, 2016.

박 은 식(Eun-Sik Park)

[정회원]



- 2021년 9월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
- 2019년 3월 ~ 현재 : 공주대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전임교수

<관심분야>

여가활동, 생활체육, 여가물입, 특수교육